

환영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캠페인 - 영적인 삶은 교회와 함께

예고

· 다음 주일 설교는 강준수 목사입니다(총회 고시위원장, 라스베가스 안디옥 교회 담임)

수요예배

· 이번 주 수요예배는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 협의회 주관으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장소: 주님의 교회 설교: 정영택 목사(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경주제일교회 시무)

기도회

· 금요기도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일시: 매월 첫째 주 오후 8시 장소: 본당

전시회

·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행사 사진을 본당에서 오늘까지 전시합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시대적 존재가치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발간

· 16년 동안 주보에 실렸던 여러내용들을 묶은 칼럼집을 작년에 이어 제2집을 제1집과 함께 발간했습니다. 지난 주에 가져가지 못한 성도들은 가져가세요.

섬김

· 아동부와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관심있는 성도는 자원하기 바랍니다.

기념품

· 창립주일 기념으로 준비한 수건이 남아 있습니다. 받지 못한 성도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 지난 주에 유아세례 받은 아기들 명단입니다. 목티파니, 이의건, 임은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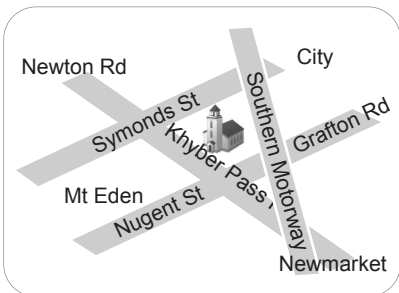
음악회

· 광복 70주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일시: 7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한우리 교회
주최: 송실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교우소식

· 득남: 구 에이미성도가 지난 주에 득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김석목, 김윤자집사 가정 3 Ludlow Pl. Pukekohe Auckland 전화 09-239-1001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 태 한
- 부 목 사: 심 창 진
- 부 목 사: 이 성 철

설교 방송

- www.youtube.com/calvaryorgnz
- www.koreaniptv.co.nz



2015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2015년 7월 19일 주일 17권 29호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시편 34:1-3
※ 찬 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대 표 기 도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로마서 1:16-17
찬양대 찬양	주 예수이름 소리높여/십자가 군병 되어서/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복음의 능력 /이태한목사
찬 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이태한목사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임태원 형제
수요 예배

오한협 주관
연합예배

금주의 기도제목

1.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지방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주일 성수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생활하도록
3. 영육간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회복이, 삶의 어려움속에도 소망을 주님께 두는 성도들이 되도록

7월 새벽기도회 본문

7월 24일: 열왕기하 22:12-20 납작 엎드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 열왕기하 25:18-30 죄인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바누아투 선교를 떠났다가 포트빌라에 머무르며 여기저기 정탐과 리서치를 하고 있는 문지현집사가 보낸 소식입니다.

포트빌라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시비리'가 그다음에 '삼마', 그 옆은 '에무아' 그리고 그 옆이 '파오낭기수'이다. 파오낭기수는 바누아투에서 보기 드문 Clinic이 있다.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는 클리닉은 내가 다녀본 곳중에는 파오낭기수 밖에 없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파오낭기수 클리닉은 좋냐고 물었더니 다들 좋다고 해서, 좋겠거니... 생각 했는데 건다보니 그곳까지 가게 되어 한번 둘러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좋다.'와 그분들의 '좋다.'의 의미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다른 마을 사정에 비해서는 너무 좋지만, 분명 열악했다. 좋다고 해도 현재 의사는 없고 간호사 2~3명에서 진료, 처방 그리고 문서작업까지 다 하고 있었다.

파오낭기수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사바키' 마을을 만난다. 사바키는 12집으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다. 메인 도로에서 보이는 집에 잠시 들렀는데, 외국인이 방문해도 눈길을 잘 안주고 엄청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방해하는 것 같아서 인사하고 빨리 나왔다. 더 걸다보면 '타카라'에 속하는 지역들이다. 타카라는 그 구역이 굉장히 넓다. 집들이 다 모여있는 삼마마을과는 달리, 행정구역으로는 타카라인데 몇집씩 떨어져서 살고 있고 크게 구성된 메인 마을은 해변에 위치해있다. 분명 아까 만난 사람들도 자기 마을은 타카라라고 했는데, 걸어서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집들도 물어보면 타카라 라고 한다. 타카라는 형편이 삼마마을과 비슷해 보인다.

타카라를 지나면 '오네수아'다. 오네수아는 한마디로 '학교마을'이다. 에파테에는 큰 College (Lycée)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오네수아, 하나는 울레이에 있단다. 오네수아에는 큰 고등학교, 그리고 6개의 기숙사, 선생님들이 사는 집, 그외 학교와 관계없는 사람소수,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와 선교사 기념 예배당이 전부이다.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은 하나로 4명의 학생들 밖에 없었다. 아직 많은 학생들이 학비를 마련되지 않아 못오고 있다 한다.

오네수아를 지나면 에파테섬의 동쪽이다. 마을의 분위기는 삼마가 있는 서쪽 지역과 사뭇 다르다. 해변 입장료를 받으며 돈을 벌기도 하고, 중간중간 어설피지만 카페가 있고 넓게 목축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도 보인다. 마을이 없는 길들이 많았고, 중간중간 있는 마을들은 제법 번듯한 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쪽의 몇몇 마을을 둘러보다가, 차를 얻어타며 숙소로 돌아가야 했기에 몇몇 마을을 빠르게 지나가며 모두 둘러 볼수 있었다. 다음주는 서쪽으로 다시 가서 아직 가보지 못한 메인도로와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들을 둘러볼계획이다.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7월 교회일지	◎ 7월 예배봉사자	◎ 기도문서
월삭기도회: 7월 1일(수요일) 창립감사주일: 7월 12일 (주일) 선교보고주일: 7월 26일 (주일) 공동체주간 수요예배: 7월 29일(수요일)	예 배 안 내: 최득수/정옥자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이정인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장미선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7월 29일 수요: 손조훈 집사 7월 29일 애찬: 이규임 권사 8월 2일 주일: 이기중 권사 8월 2일 청년부: 홍진술 자매